

Sun 일	Mon 월	Tue 화	Wed 수	Thu 목	Fri 금	Sat 토
	<b>1</b> 근로자의날— 지도자들이 국가의 노동자들을 고통이 아닌 축복하는 법으로 진정으로 존중하며 대할 수 있도록.	<b>2</b> 하나님, 봄이 오는 때에 가뭄의 끝이 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소서!.	<b>3</b> 북한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b>4</b> 북한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과 모든 일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b>5</b> 삼수령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달에 삼수령 목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b>6</b>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번째강계획의 필요와 재정을 공급하시도록.
<b>7</b>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짓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렘. 33:6	<b>8</b> 땅을 경작하며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혜를 주시도록.	<b>9</b> 땅을 고르고 씨를 부리는 농부들과 농경 일꾼들을 위해.	<b>10</b> 선교, 기도 및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북한을 돕기를 원하는 교회들, 단체들과 사람들을 위해.	<b>11</b> 북한의 전도와 사역을 위하여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b>12</b> 하나님께서 삼수령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이들을 격려하시도록	<b>13</b>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있는 노동학교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시도록.
<b>14</b>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왕재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렘. 33:10-11	<b>15</b> 식량과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열려지고 장려될 수 있도록.	<b>16</b> 북한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더 이상 탈취당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b>17</b> 북한을 섬기는 모든 선교 및 사역 단체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b>18</b>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과 다른 압박들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b>19</b> 하나님께서 삼수령 일꾼들을 위한 더 많은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급 하시도록.	<b>20</b> 주님께서 이번 여름에 있는 노동학교에 준비되어가는 것을 인도하시도록.
<b>21</b> “...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b>22</b> 주여, 국가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며 그들을 절망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는 국가관리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b>23</b> 성령께서 분리의 영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하시며 용서와 치유를 주시도록.	<b>24</b>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들이 쉬지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b>25</b> 고난, 핍박, 의심과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b>26</b> 하나님께서 삼수령에 있는 소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건축하기 위한 재정을 공급하시도록.	<b>27</b> 11월에 있을 북한에 대한 학회 컴퍼런스 준비를 위해.
<b>28</b>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몰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렘 33:11	<b>29</b>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 열리기를 구하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도록.	<b>30</b> 땅과 사람들이 믿음, 기쁨, 평화와 평강함으로 회복되도록.	<b>31</b> 북한의 지하교회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과 풍요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땅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9:8-10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젓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흑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14-15